

방탄소년단·RM·슈가·제이홉, 그라미 어워즈 3년연속 후보 지명

콜드플레이 앨범 참여한 송라이터 자격·팀은 피처링으로 후보 올라
팀은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베스트 뮤직 비디오' 노미네이트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의 '그라미 어워즈(Grammy Awards)'에 3년 연속 후보로 지명됐다.

15일(현지시간) 그라미 어워즈 측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제65회 그라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서 방탄소년단은 브릿팝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3년 연속 지명됐다.

스웨덴 팝 그룹 '아바'의 '돈트 서 미 다운', 영국 팝스타 에드 시런이 피처링한 쿠바 태생의 카밀라 카베요의 '뱀뱀', 미국 힙합스타 포스트 말론과 미국 가수 도자 캣의 협업곡 '아이 라이크 유(어 해피어 송)', 영국 팝스타 썸 스미스와 독일 싱어송라이터 킵 페트라스가 콜라보레이션한 '언홀리' 등과 경합한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20년과 지난해 각각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로 같

은 부문 후보에 올랐었다. 특히 앞선 두 곡이 온전히 영어 노래인 반면 '마이 유니버스'엔 한국어 노랫말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 곡은 작년 발매 당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핫100'과 영국 오픈셜 싱글차트에 장기간 머물며 흥행했다.

또 이날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발매한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의 타이틀곡 '옛 투 컴'으로 '베스트 뮤직 비디오' 부문 후보로도 지명됐다. 비주얼 디렉터 롬펜스가 감독한 '옛 투 컴' 뮤직비디오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입대 등으로 당분간 완전체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걸어온 음악 여정을 되돌아본 작품이다. 뮤직비디오의 모든 장면은 방탄소년단의 지난 뮤직비디오 속 장면들에서 영감을 받았다.

'옛투컴' 외에 영국 팝스타 아델의 '이지 온 미', 도자 캣의 '우먼', 미국 힙합스타 켄드릭 라마의 '더 하트 파트 파이브', 영국 팝스

타 해리 스타일스의 '애즈 잇 워즈',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올 투 웰 : 더 쇼트 필름'도 같은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특히 RM, 제이홉, 슈가는 이번에 그라미상 제너럴 필즈 중 하나인 올해의 앨범 후보에 오른 콜드플레이의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에 송라이터로 참여한 자격으로 해당 부문 후보에도 오르는 기쁨을 토했다. 팀도 피처링 자격으로 해당 부문 후보에 올랐다.

'올해의 앨범'은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등 '제너럴 필즈'로 통하는 그라미 4대 본상으로 통한다.

방탄소년단이 '그라미 어워즈'에서 3개 부문 후보로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K팝 첫 '그라미 어워즈' 후보 지명에 이어 역시 K팝 처음으로 '그라미 어워즈'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기쁨을 토했다. 팀의 맏형 진(30·김석진)이 올해 입대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엔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이뤄낸



성과라 의미가 크다. 사실상 올해 완전체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저력을 입증한 셈이다. 팀의 리더 RM은 이날 후보 발표 중계를 함께 지켜 보며 소실 미디어 등을 통해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반면 이날 '그라미 어워즈' 후보 발표에서 '올해의 앨범' 등에 깜짝 노미네이트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던 블랙핑크는 후보 지명이 불발됐다.

'제65회 그라미 어워즈'는 내년 2월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다.

소녀가장 조혜원, 8년만에 친모와 통화...“보고 싶어”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 방송



'고딩엄빠' 조혜원이 소녀가장으로서의 고단한 일상을 공개해 모두를 몰랐게 했다.

15일 방송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에서는 조혜원이 19세에 아이를 갖게 된 과정과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전부 사연을 전했다.

친아빠, 새엄마와 살고 있었던 조혜원은 어느날 온라인 사모임 단독방을 시작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며 급속도로 가까워지지만, 남자친구의 지나친 집착으로 이별한다. 조혜원은 헤어지고 난 뒤,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남자친구에게 알린다.

양가 부모가 만났지만, 남자친구 부모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친자 여부를 의심했다. 심지어 남자친구 가족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가까지 한 상태. 친아빠는 조혜원에게 "아이를 낳을 거면, 집을 나가라"고 말했고, 결국 그는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 출산했다.

조혜원은 정부 지원금과 하루 2개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럼에도 가계부는 마이너스였다. 조혜원은 "최근 이사를 하면서 지출한 돈이 있어서 마이너스"라 설명했고, 함께 사는 의붓동생이 일을 하겠다고 하자 "학창시절을 충분히 누웠으면 한다"며 만류했다.

조혜원은 "아이 친부에게 4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연락이 닿아도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인지 청구 소송 후에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 인정을 안 하는 경우라면, 친자 확인 소송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조혜원은 친엄마와 찍은 사진을 보다 8년 만에 친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혜원은 "아기를 키우다 보니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했고, 친엄마는 "같이 살려고 양육권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소리소문 없이 널 데려갔다"고 전했다. 눈물을 흘리던 조혜원은 "보고 싶어, 엄마가 온다고 하면 그때 만나자"라며 통화를 끝냈다. 뒤에서 손녀를 지켜보던 외할머니 모습에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뉴스스

배우 정우성, 영화감독으로 연출력 입증

'보호자'로 하와이국제영화제 공로상 수상



배우 정우성이 영화감독으로서 연출력을 입증했다.

16일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에 따르면, 정우성은 지난 1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42회 하와이 국제영화제(HIFF)에서 영화제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할레쿨라니 커리어 공로상(Halekulani Career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할레쿨라니 커리어 공로상은 세계적인 커리어로 정점에 올라간 아티스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켈빈 타란티노 감독, 왕자웨이(왕가위) 감독, 사무엘L잭슨, 장만옥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해당 상을 수상했다.

정우성은 첫 장편 연출작인 영화 '보호자'가 하와이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됨에 따라, 영화제를 찾아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현지 관객들과 직접 소통, 영화를 선보이며 호평 받았다.

'보호자'는 10년 만에 출세해 자신을 쫓는 과거로부터 벗어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다. 정우성은 연출과 더불어 주연 '수현' 역을 맡았다.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하와이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제47회 토크노 국제영화제, 제55회 시체스 국제영화제 등 전세계 주요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는 등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1981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영화제는 전세계 영화인들이 모이는 자리로 오세아니아, 태평양 인근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중 하나다.

'훗 팝 슈퍼스타' 해리 스타일스, 내년 3월 첫 내한공연

영국 보이밴드 '원 디렉션' 출신

'그라미 어워즈' 수상에 빛나는 영국 글로벌 팝 슈퍼스타 해리 스타일스(28·Harry Styles)가 첫 내한공연한다.

15일 공연 기획사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에 따르면, 스타일스는 내년 3월20일 오후 8시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KSPD DOME·옛 체조경기장)에서 한국 팬들과 처음 만난다.

2010년 영국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엑스 팩터(The X-Factor)'에 출연한 스타일스는 게스트 심사위원이었던 니콜 셰르징거(Nicole Scherzinger)와 프로듀서 사이먼 코웰(Simon Cowell)의 제안으로 영국 보이 밴드 '원디렉션(One Direction)'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원 디렉션은 UK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데뷔 싱글 '왓 메이크스 유 뷰티풀(What Makes You Beautiful)'을 시작으로 첫 앨범 '업 올 나이트(Up All Night)'부터 4집 '포(Four)'까지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7000만 장 이상 음반 판매 기록을 세우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보이 밴드 중 하나로 통한다.

2016년 원 디렉션이 무기한 활동 중단을 결정한 이후 스타일스는 2017년에 글램 록의 영향을 받은 소프트 록 발라드 싱글 '사인 오브 더 타임(Sign of the Time)'을 발표하며 솔로 아티스트로 첫 발을 내디뎠다. 직접 제작에 참

여한 셀프 타이틀의 첫 솔로 앨범 '해리 스타일스(Harry Styles)'는 평단의 호평과 함께 발매 첫 주에 영국과 미국 앨범 정상에 차지한다.

더욱 폭넓어진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인 2집 '파인 라인(Fine Line)'(2019) 또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넓은 뮤지컬적 역사상 가장 높은 주간 판매량을 기록한 영국 솔로 남성 아티스트 기록을 세웠다.

빌보드 싱글 차트 첫 1위 곡이 된 '워터멜론 슈거(Watermelon Sugar)'로 그라미 어워즈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브릿 어워즈 '올해의 노래' 부문을 수상했다.

올해 세 번째 앨범 '해리스 하우스'의 리드 싱글로 발표한 '애즈 잇 워즈(As It Was)'는 UK 싱글 차트 10주 1위, 빌보드 싱글 차트 15주 1위 기록을 세우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음악 활동 외에 영화 '덩케르크(Dunkirk)'를 시작으로 배우로서도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그(VOGUE) 매거진 역사상 최초로 남성 단독 표지 모델에 선정되기도 했다.

앨범의 성공과 더불어 대규모 월드 투어 또한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러브 온(Love On)' 투어 일정이 작년 9월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시작으로 재개됐다. 올해 말까지 북미, 유럽, 중남미 공연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코첼라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 호평을 들었다.

이번 내한공연에서는 '사인 오브 더 타임스' 등 대표 히트 싱글을 들려준다. 티켓은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공식 예매처인 예스24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판매되며 라이브네이션코리아 홈페이지 회원은 23일 오후 1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매 가능하다.

성유리 화장품 회사 "빚쟁이 관계사 투자금 반환"

"박민영 전 애인 강종현과 모르는 사이"

그룹 '핑크' 출신 성유리(41)가 대표인 화장품 회사 율리아엘이 가상화폐 거래소 '빚쟁이'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로부터 30억원을 투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율리아엘은 배우 박민영(36) 전 남자친구 강종현(40)이 빚쟁이 숨은 회장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뒤 투자금을 반환했다며 "성유리와 강씨는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율리아엘 관계사는 15일 뉴시스에 "지난달 강씨 이슈가 불거졌을 때 버킷스튜디오 투자금 30억원을 바로 빼서 돌려줬다.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화장품 회사는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상한 문제에 연루되면 안 되기에 조심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버킷스튜디오는 성유리·안성현 부부가 소개한 게 아니다"라며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니 동업하는 회사에서 소개해줬다. 강씨와 연관 있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성유리는 율리아엘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유리씨가 연에게 생활을 오래해 경영, 재무 등은 잘 모르지 않느냐. 처음부터 (기업 운영을) 위임했다"며 "제품 디자인, 마케팅 감각 등이 뛰어난 만큼 이 부분만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빚쟁이를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비텐트·버킷스튜디오, 코스피 상장사 인바이오젠



을 인수한 것과 관련 자금 230억원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다. 여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의 상장사 인수를 도와줬을 뿐이라며, 자신은 신용불량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씨는 성유리 남편인 골프선수 안성현(41)과 절친한 사이로 주목 받았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강씨가 타고 다니는 마이바흐는 안성현 명이다. 안성현은 이니셜의 전신인 비드갤러리아 조형원이었으며, 비텐트에 6억원을 투자했다. 지난달 성유리 측은 "남편 차를 강씨에게 대여한 줄 몰랐다"며 "두 사람 친분 관련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유리 역시 '강씨 사업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성유리는 2019년 버킷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며, 다음해 더불어민주당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이니셜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니셜엔터 김모 대표는 빚쟁이 최대주인 비텐트 주요 투자자로 알려졌다.